

# 인터넷

☰ 태그	
📅 날짜	@2023년 5월 23일

전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대한 네트워크.

네트워크란 '네트' 와 '워크'의 합성어로 여러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.

무선 유선 사설 공공 기관 정부 등등의 여러 네트워크가 있다.

이러한 **네트워크의 집합체를 인터넷**이라고 한다.

2대의 컴퓨터라면 1대1로 연결되는데 10대 100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앙에 라우터라는 기기를 두고 각 컴퓨터를 라우터에 연결하게 된다.

라우터 끼리도 연결이 가능하고 더 크게는 인터넷 선을 타고 나가는데 그 연결 을 제공하는 모뎀 이 있다.

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를 ISP (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)라고 한다.

모뎀을 통해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하게 된다. 이것이 끊임 없이 연결되면 인터넷이 되는것이다.

터미널에서 `ping google.com` 명령어를 입력하면 구글의 ip를 보여준다.

ip를 외울순 있지만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**google.com** 처럼 문자로 변경한것이 **DNS(Domain name system)**이다.

## 웹소켓

웹소켓은 데이터를 주고 받을때 HTTP로 주고 받는다.

HTTP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.

웹소켓은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써 HTTP위에서 구축되었다.

최초에는 HTTP 통신을 해서 핸드셰이크를 해주어야한다.

그 다음에는 웹소켓으로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 되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.

끊을때도 클라이언트나 서버 양쪽에서 아무나 끊을 수 있다.

그러면 어디에 웹소켓을 사용할가?

실시간 통신이 필요하거나 채팅이나 주식같은 곳에서 사용하게 된다.

웹소켓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업비트가 있다.